‘함께 만드는 평화·통일’… 서울시민 2440명 머리 맞댄다

서울시, 미래지향적 통일문화 조성
토론 거쳐 쟁점 논의… 합의 도출
올 행사 횟수, 참여 대상 확대

서울시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연다.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통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시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다양한 이념 및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바텀업 방식의 여론 수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주체나 이해당사자들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쟁점을 논의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2019년도 사회적 대화 참가자 분포〉

대화구분		전체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합계 (단위:명)		739	100.0%	137	192	207	203
성	남성	326	44.10%	65	80	88	93
	여성	413	55.90%	72	112	119	110
연령	19~29세	115	15.60%	14	30	25	46
	30~40대	252	34.10%	54	65	61	72
	50대 이상	372	50.40%	69	97	121	85
정치성향	진보	276	37.30%	45	64	87	80
	중도	292	39.50%	51	74	83	84
	보수	171	23.10%	41	54	37	39

/서울시

시가 지난해 9월 4대 권역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숙의 전 84.3%에서 93.1%로 8.8%포인트 높아졌다. 다른 생각·주장 이해는 97.2%, 나와 다른 의견 존중은 91.3%로 나타났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에 대한 인지도는 기존 47.1%에서 50%로 2.9%포인트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내 통일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에는 행사 횟수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사회적 대화 추진 횟수는 기존 4회에서 15회로 약 4배, 참여 인원은 739명에서 244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

또 연령과 직업, 이념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이 한 데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청소년, 교사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북·동남·동북·서남권 4대 권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가 39.5%(292명)로 가장 많았고 진보 37.3%(276명), 보수 23.1%(171명)가 뒤를 이었다.

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다 보니 일부 의제에 대한 참여자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세대간 공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현재 남북관계 정세와 서울시, 시민들의 현안에 맞는 의제설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퍼실리테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퍼실리테이터는 토론회 참석자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숙의형 퍼실리테이터 50명과 합의형 퍼실리테이터 20명 등 총 70명을 양성한다. 숙의형 퍼실리테이터는 구성원들이 상호토론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합의형 퍼실리테이터는 숙의형을 바탕으로 숙성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제는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발굴하고 일반 및 이슈, 특화의제로 구분해 세션별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는 7월까지 토론회 의제 선정과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완료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9~11월 15회 안팎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서울시의 평화·통일 정책 결정 등에 활용된다.

시는 “사회적 대화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폭넓게 참여해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자전거 타고, 1회용품 줄이고 마일리지 쌓자”

서울시 “에너지 84만TOE 절감”
자전거 마일리지제 도입
회원등급제로 참여동기 부여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적립 분야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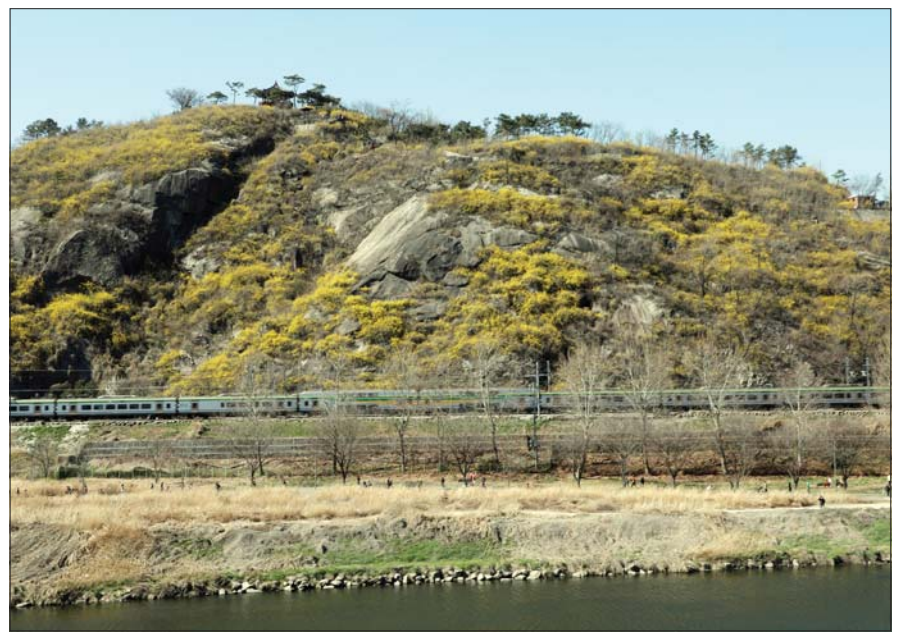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 참여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다. 시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해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준다. 마일리지는 친환경 제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에코마일리지에 자전거 이용량을 측정하는 ‘자전거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 여름·겨울철 피크기간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 등급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눠 정회원 이상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고 특별 포인트를 준다.

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의 20%가 넘는 211만명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해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84만TOE를 절감했고 온실가스 176만t을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현재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여하튼 봄

22일 개나리가 핀 서울 성동구 응봉산 앞으로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난곡사거리 터널 상부에 ‘공공주택+복합체육시설’

서울시- SH공사
유휴부지에 생활인프라 공급

오는 2022년 개통하는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 신림~봉천터널 상부에 공공 복합주거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터널 상부 5212㎡ 부지에 행복주택 280호와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22일 밝혔다.

난곡사거리 터널 복합주거시설 현상설계공모에는 박인영·원유민 건축가가 낸 작품이 당선됐다. 당선팀에는 기본·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 형의 중정 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개방감을 살렸다.

4층 규모의 체육시설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옥상에는 조깅 트랙과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둔다.

신림~봉천구간 터널 상부에 조성된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 상상도. /서울시

행복주택과 체육시설은 개별 건물로 만들되 보행 통로로 연결한다. 당선작은 전면에는 남부순환로와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한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팀이 참가했고 심사 과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터널 위 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말 제시한 ‘주택 8만호 공급’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정책의 하나로,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유휴부지에 주택과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모델을 적용한 것이다.

2024년 입주 예정인 송파구 장지동과 강동구 강일동 버스 공영차고지 공공주택 1805호,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중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위 공공주택 1000호 건설 등이 이와 유사한 개념의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 버스정류장,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

양화·신촌로 18개 승차대 녹화사업

서울시는 마포구 합정동부터 홍대입구, 신촌을 지나 아현역까지 이어지는 양화·신촌로(양화대교 북단~아현역 6.2㎞) 중앙버스정류장 18개소를 푸른 식물로 꾸미는 ‘버스정류장 승차대 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양화로와 신촌로의 중앙버스정류장 승차대 상부에 상록기린초, 수호초가 심어진 박스 형태의 화분을 설치한다. 버스정류장 벽면 공간에는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바이오월(벽면식물)을 식재한다.

시는 4월까지 버스정류장 승차대의 지붕과 벽면, 주변 펜스를 녹색 식물로 단장할 예정이다. 이후 녹화 사업의 효과와 시민 호응도를 분석해 버스정류장 외에 지하보도 캐노피 등 다양한 가로구조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로구조물에 녹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정류장 승차대 녹화사업 후 모습. /서울시